독자투고 ——한·약 분쟁을 바라보며

양심수 구출할 자 누구 없는가?

현대의 의술은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꿈을 현실화시키고 불치병이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제 인류의 영원성은 동물의 본능적 생식의 종족번식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풍요와 자유로운 삶의 재창조속에서 관찰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불가능때문이 아니라, 보다 빠른 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내는 방식의 개발과 예방의학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치병이 없어져가는 이 사회의 개인은 절망과 준비되지 못한 죽음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창조된 최고의 의술이 치료에 쓰이는 데는 항상 질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질서는 사회적 개인이 엄마만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의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위험스러움에 상응하는 의술과 약품의 사용에는 화폐로 교환할 능력이 있는 자로부터 순위가 결정되고, 그도 아니면 탈락되는 민주주의 상품질서가 버티고 있다.

질서가 방해하는 치료

그래서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질병은 죄악이다. 환자는 그 죄악의 죽쇄에 옭아매인 죄수다. 고립감과 두려움, 능력의 감퇴로 인한 사회관계로 부터의 소외, 유체적, 정신적 구속상태, 죽음에의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댓가로 치워져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지독한 운명때문인가? 개 같은 숨버릇과 나쁜 생활습관, 더러운 성질, 어쩔 수 없는 노동환경덕분에 피해가지 못하는 높일뿐인가? 오히려 환자는 양심수다. 우리는 대부분 예방, 치료가 기능한 사소하거나 커다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양심수다. 상품사회속에서 '질병의 퇴치'란 개인의 다양한 삶의 양식과는 별개로 물신화된 '질병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를 끊임없이 양심수로 만든다.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질병만을 처리하려 한다.

질병은 죄악이다!

나는 최근에 비화되고 있는 '한·약분쟁'이 실로 인간의 생명을 걸고 벌이는 한판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약사라는 전문자격증을 달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사회의 '국민보건과 건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 약의 전문가라는 직함은 질병을 소비하는 상품관계속에서 단지 소비중개인의 역할일 뿐이다. 이 상품관계속에서 약사는 건강을 팔아 생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진정 문제의 본질이 '한약조제권'에 있는 것일까?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조제의 권리'를 주장하는 두개의 전문집단이 막상막하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전장에는 미열한 세티즘(분파주의)과 억압적인 권위주의가 용트리고 있다. 거기에는 불특정한 다수를 소외시키는 전문가의 '절대적'권리를 놓치고 살지않은 자존심이 뻣뻣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 시대의 전문가는 서로를 소외시키고 억압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원리에 가장 충실하다. 어떤 지식도 한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속해있지 않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전문가인 나'를 제외한 '불특정한 그'에게 경쟁과 우월성의 도구로 이용되는 때, 전문성은 '그'와 '나'를 등시에 소외시킨다. 국제적인 특성전문인과 추상적이고 불특정한 대중으로 의 분리는 인간적 삶의 '교류'를 원초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분리의 한 가운데로 상품사회의 가치법칙이 도도하게 관철되고 있다. 모든 가치가 상품으로 교환뒤으로써 분분한 인간관계의 교류와 창조에 대한 본신에 기초하고 있다. 어떤 절대정신—물론 지금 이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다—이 있어 사회적 개인의 다양한 욕망과 삶을 교통정리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질서는 분리와 억압, 소외에 투쟁을 통 형식주의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창조를 삭감하고, 권리와 책임으로 독립적인 개성을 해체시키는 물개성의 획일주의다. 한약분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약약분업'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출기에서 탄생하고 있다. 전문지능의 완전분업과 통합의료체계의 정망은 마치 부분의 합은 전체라는 도식을 생각나게 한다.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 것이다. 의사가 약을 다루고 있거나 없다는 사실이 정말 문제일까? 이것은 완전히 핵심을 빗겨 간 문제의식이다. 개인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삶속에서 고통이 치료되는 과정과 분리된 '약의 전문가, 질병의 처치'라는 물신성의 상품사회가 의료인을 도대체 환자권으로 가지못하게 하지 않는가!

부분의 합은 전체

양방의 전문지식을 새롭게 습득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망은 오히려 솔직하다. 그들이 말하듯, 이 분야는 본질적으로 양 직능의 정립차원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의료교육정이 의료인이 아니라 '기술자'를 양산해 온 데 대하여, 사회적 개인의 가치가 상품으로만 인정되고 평가되는 사회관계에 대하여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는 그들의 투쟁에는 능력있는 전문가, 고가의 상품으로 길들여지는 구역질나는 과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진실이 숨겨져 있기에 나는 그들을 전적으로 옹호한다. 누가 그들을 민주주의와 질서라는 시퍼런 칼로 재판할 수 있는가? 필요한 것은 준재나 적절한 타협이 아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전문지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의 연정과 용기, 힘을 교류하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의료행위이다. 만족의학과 서양의학의 대립이라는 진행하고 기계적인 사고가 아니라,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라는 가치의 변화와 교류속에서의 재창조이다.

'기술자' 양산한 교육

현대인은 누구나 약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가급적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충동적인 행위나 파괴적인 모습에 대해 정신분석학자나 정신과의사가 내리는 처방이다. 이 처방은 틀렸고 정신병자는 바로 그들이다. 이 상품사회에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환상만큼 아픈다운 거짓말은 없다. 생동하는 숨결로 비약하려는 개인은 그의 열정과 용기가 기존의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 비현실적인 정신병자로 몰린다. 그들의 뇌가 상식이상이어서도 이해여서도 안된다. 길릴레오의 지구가 다시 놀기전까지는 지구가 멈춰있다고 옥박지르는 상식이 이 사회에서는 관철되고 있다. 질병이 죄악이고 환자가 죄수인 사회에서 양심수를 구출하려는 자 누구 없는가?

최 선 희
〈이대 약대 90년 졸〉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및 내역

〈박상동 동서한방 병원 원장〉

◆박상동(동서한방 병원장, 송동문회 이사, 한의학과 15회) : 1억원 ◆허귀진(사회대 회계학과 교수) : 1백만원 ◆허인섭(정경대 교무주임) : 1백만원 ◆진용유(문리대 영문학과 교수) : 5백만원 ◆황용훈(사학과 교수, 서울 도서관장) : 5백만원 ◆유공조(사학과 교수) : 5백만원 ◆안재욱(경제학과 교수) : 3백만원 ◆안재륜(경희국민학교 교장) : 1백만원 ◆이창은(경희여중 교장) : 1백만원 ◆박창상(경희중학교 교장) : 1백만원 ◆정병엽(경희여고 교장) : 1백만원 ◆여성구(경희고등학교 교장) : 1백만원 ◆이근수(회계학과 교수) : 1천만원 ◆김병일(경희호텔전문대학장) : 5백만원 ◆배태영(수원캠퍼스 부총장) : 5백만원 ◆박규홍(수원캠퍼스 기획관리실장) : 6백만원 ◆장정모(수원캠퍼스 교무처장) : 3백만원 ◆이일연(수원캠퍼스 사무처장) : 2백50만원 ◆황병련(수원캠퍼스 도서관장) : 3백만원 ◆김용태(산업정보대학원장) : 5백만원 ◆배기열(의국어대학장) : 3백만원 ◆현종민(사회과학대학장) : 3백만원 ◆김정현(자연과학대학장) : 3백만원 ◆전동훈(공과대학장) : 3백만원 ◆김무성(산업대학장) : 3백만원 ◆장주호(체육과학대학장) : 3백만원 ◆박종근(국제교류위원회 과장) : 3백만원 ◆이우호(국제교류위원회 직원) : 1백만원 ◆김미혜(국제교류위원회 직원) : 1백만원 ◆김중섭(국제교류위원회 직원) : 2백만원 ◆최풍근(행정대학원 과장) : 1백20만원 ◆신정현(정외과 교수) : 2백만원 ◆손용기(아·태연구소직원) : 2백만원 ◆임 언(부속병원장) : 금일봉 ◆송일병(한방병원장) : 2백만원 ◆이만섭(치과대병원장) : 2백만원 ◆김성훈(서울캠퍼스 총무과직원) : 50만원 ◆조종관(서울캠퍼스 학생처 장학주임) : 50만원(이상 9월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내역임)

※정정 대학주보 제 1029호 1면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중 '김수관(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을 '김수근(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으로 정정합니다.

발전기금 접수안내

개인(교수, 직원, 학생, 동문), 단체(직장, 동문회, 동아리, 학생회) 누구나 액수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기금접수는 온라인 계좌 또는 직접 출연할 수 있다.

국민은행:010-01-0618-642
신탁은행:17301-2710-209
농 협:031-01-396711
우 체 국:012336-0025555

(해금주는 각 계좌명 공히 '경희대학교')

〈기금접수에 관한 문의는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961-0025·6)로 문의 바람〉

분파주의 도사린 두 전문 집단의 대립

한약조제권, 의약분업 핵심 비껴나

물신성의 상품사회…의료인-환자 거리

'퇴폐문화척결' 추상적 구호 염증

문화공간 마련 대안제시 선행돼야

"퇴폐 문화 척결하고 민족문화 건설하자"들는 이에게 아주 호소력있고 타당하다는 느낌을 주는 구호이다. 하지만 보다 냉철하게 이 말의 의미를 따져 보자. 얼마나 추상적이고 대안없는 말인가? 과연 퇴폐문화란 어떤 기준에서 나온 말이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민족문화일까! 앞에서 말한 그 구호속에 과연 어린 고민이 어느정도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학교앞 거리 문화를 정화하자는 취지로 이런 구호가 나왔다는 것은 본교 학우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동감할 만하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과연 이 퇴폐문화란 어떤 기준에서 나온 말일까! 락 카페, 심야 영업소…아마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 크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퇴폐 문화를 척결한다면 이런 락 카페등을 없애자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어느정도는 뜻이 통한다. 하지만 과연 락 카페를 없애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 락 카페주인? 아니다. 바로, 학생들이다. 락 카페가 등장하고 번성하게 된 데에는 반드시 그 배경이 있고 필요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는걸까! 단적으로 말해서 학생들이 즐길만한 뚜렷한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락 카페를 없애고 퇴폐문화를 척결하자는게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가!

하나 덧붙여 민족 문화를 건설한다는 말이 불온 퇴폐 문화 척결 대안으로 나왔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민족 문화가 팽파리나 치고 북두드리는 거라면 나라도 거부한 것이다.

어쨌든 학교앞 거리 정화운동을 벌이기에 앞서 무조건 퇴폐문화를 척결하자는 발보단 과연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많은 지난 23일에 노천극장에서 열린 경희분전과 민주 총장을 위한 '자주 정희 전굳식'을 보고 느낀점을 피력한 내용이다.

김 창 종
〈정경대 무역·2〉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jang 3
◇보냄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choarha

알림터

교수동정

이성렬 교수 방일

【서울캠퍼스】▲김진수(체대·체육학)교수=10월5일부터 10일까지 '1993년 CHINA CUP 국제체조대회'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중국 북경 방문 ▲이동신(정경대·산방과)부교수=9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선방송에 대한 연구조사차 미국과 일본 방문

【수원캠퍼스】▲정인식(자연대·유전)교수=9월21일부터 24일까지 호주 논문발표 ▲전억한(산업대·식품가공)교수=9월20일부터 24일까지 호주 논문발표 ▲이성렬(자연대·화학과)교수=9월27일부터 10월7일까지 일본 공동연구 ▲정석진(공대·화공과)교수=9월25일부터 10월3일까지 호주 국제학술회의참석 ▲김정수(공대·화공과)교수=10월3일부터 10일까지 학회참석 및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류이희(정학·2) ▲이상천(수학·4) ▲조현주(국문·1) ▲고청식(생물·4) ▲정상훈(지리·1) ▲진순대(국문) ▲이택주(물리·4) ▲신재환(화학·4) ▲이병청(행정·3) ▲강만석(경영·2) ▲정효원(경영·3) ▲김식혁(경제·4) ▲최영락(경영·3) ▲송희주(의상·4) ▲정정주(의학·1) ▲서상기(약과·3) ▲이붕기(졸업유) ▲이경란(한의·2) ▲전주표(한의·1) ▲백현준(치대·2) ▲김현정(약대·1) ▲김소연(기악·3) ▲김중연(제육) ▲홍윤식(체육) ▲허현(체육) ▲김윤미(삼의원214) ▲윤시내(삼의원219) ▲김해범(삼의원422) ▲정성희(삼의원214) ▲박홍신(삼의원318)

【수원캠퍼스】▲박성익(영문·2) ▲조선미(영문·1) ▲이희연(불문·3) ▲이선희(일문·1) ▲정연욱(일문·1) ▲김익유(러시아·1) ▲김학재(경영·2) ▲조용복(경영·1) ▲권세동(회계·2) ▲박영선(회계·2) ▲하경민(화학) ▲김승학(환경·3) ▲조영래(환경·3) ▲손정희(환경) ▲황기원(유전·1) ▲김영미(유전·1) ▲김현정(우주·4) ▲김태현(우주) ▲김태현(기계·1) ▲박종희(기계) ▲김종연(전자·2) ▲김태형(화공) ▲이혜정(건축·1) ▲박정현(건축·1) ▲김기성(토목·1) ▲상상수(산공·2) ▲정형기(산공·2) ▲박종우(원자·1) ▲류석진(원자·2) ▲김형철(전산·1) ▲김태규(전산) ▲김학환(전파) ▲서완석(농학) ▲정지찰(임학·3) ▲송인숙(원예·3) ▲이수경(원예·4) ▲이용진(식공) ▲김정기(조경·3) ▲이수현(도예·2) ▲이재순(체육·2) ▲양경란(체육) ▲오종환(체육·4) ▲박윤배(체육·4)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박승정(한의예·90) ▲박재홍(경제·86) ▲정정용(회계·90)

【수원캠퍼스】◇지갑=▲윤순영(행정) ▲신우화(조경·92) ◇학생증=▲김진태(화공·91) ◇시계=▲김은출 사람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지갑=▲김은석 지갑 학생회관 로비 ▲김은석 지갑 9월10일 학교내 ◇반지=▲18K 2돈 금반지 9월11일 사회대 화장실

동문모임

세화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청원고 동문회=9월27일 6시30분 채대앞 녹원

【수원캠퍼스】▲시흥고=9월27일 오후5시30분 공대식당 ▲세화고=9월27일 오후6시30분 강남역 6번출구 ▲환일·예일고=9월28일 오후5시 연대 '독수리'앞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프로 경영자란 무엇인가?

전문적 지식, 높은 목표, 자신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도공(陶工)이 도자기를 깨는 뜻은"

프로 경영자의 조건

'전문가'라는 말은 흔히 '기술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기술자라는 것은 대개 '장인'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지만 그 자신은 그 일에 대한 자기 개발에 게을러 지기 쉽다. 그러나 프로페셔널은 자신의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 넓은 식견과 일반 교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허해야 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어제의 정답이" 내 "오늘의 오답"이 되기 일쑤이다. 항상 현장을 살피면서 눈과 귀로 현장의 변화를 직접 보고 들어야만 진정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 최선을, 결과에 승복을

전문적 프로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함이 요구된다. 자기는 그동안의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하여 믿어졌는데, 자신의 일에 대해 다시 그 분야를 개발 수 있었는가? 훌륭한 도공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구운 수많은 도자기를 깨뜨려 버린다. 그렇게 전문인이 참고 해내는 나라, 치라리 엔 바에는 나에게 부터고 해도 그것은 용납할 수는 없다는 의지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작품은 세상에 남겨놓은 수 없다는 엄격한 자기평가의 자세라고 생각된다.

경영자는 높은 목표를 가져야

경영자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경영자는 전문프로페셔널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지향해야 성취할 수 있는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꿈을 갖게 되며, 혼신의 힘으로 세계의 정상을 밟게 되게 되고,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이 성장하고 회사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프로 경영자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러기에 일을 한 사람은 "나는 범위의 일했다" 라는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룩했다" 는 활동의 결과로 중요시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일정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활동으로 자기자리를 하는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의 자격이 없다. 자율경영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프로경영자" 를 요구한다.

구자경 회장 서 (오기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 럭키금성